

대구시의 사회지역분석

최 석 주*

본 연구는 대구시에 거주하며 경제적·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에 있는 저명인사를 대상으로 사회지역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는 도시내의 불량주거 또는 저소득층의 주거에 관한 기존의 고찰과 더불어 의의가 있을 것이다. 대구에 거주하는 저명인사는 도심의 전통적인 주거지역인 旧城郭의 내외에 인접한 중구와 더불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된 지역중 수성구와 남구에 밀집되어 있다.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지정된 주거전용지역은 부유계층의 주거집단을 형성하면서 수성동, 만촌동, 대명동의 일부지역이 대구의 신흥 고급 주택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된다.

오늘날 저명인사의 분포특성은 수성구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남구, 중구의 순이다. 또 저명인사의 동별 절대수와 인구 1만명당 동별 분포 밀도가 상위 6위까지 모두 같은 동(범어4, 수성1가, 봉덕2, 대봉1, 봉덕3, 만촌2)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의 두 가지 순위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명인사들이 특정지역에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10년간 변화특성은 저명인사의 기존밀집지역인 중구와 남구는 감소하고, 수성구에 현저한 증가를 보인다. 이것은 지난 10년간 이 지역에 꾸준히 추진된 택지개발과 학교 등 공공용지의 이전에 따른 고급아파트 지역의 형성의 영향도 크며, 교통, 생활 편의 시설의 상태외에 주거입지결정인자로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소위 교육여건이 유리한 학군이 저명인사의 분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지역중에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존건축물의 노후화와 시가지의 외곽확대, 전원주택의 선호 경향 등 제반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저명인사의 밀집현상은 다소 완화될 것이 전망된다.

主要語 : 성곽도시, 민족적 거주지 분리, 사회지역, 저명인사, 고급주택

1. 서론

도시의 본질은 일률적으로 정량화하기는 곤란하듯이, 제각기 다양한 모습의 동태적 과정으로 전개되는 현대도시의 진화속에서 주거지의 형성 또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을 갖는다.

도시지역내의 특정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더 살기 좋다고 평가되므로, 우리는 경제적 자원이 반영되는 생활양식의 공간적 배치에 따라 도시를 설명할 수 있다. 사람들은 사정이 허락되는 한 좋은 지역에서 살려고 한다. 왜 특별한 도시지역이 더 바

람직한 곳인가 하는 것은 인종적 선호, 가옥규모, 접근가능성 및 바람직한 자연환경에의 근접성 등과 같은 요소들과 함수관계가 있다(Willison and Schulz, 1978, 66~67).

이 중 사회적 공간의 사고는 사회·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지역적 분포를 기술하는데서 나오게 되었다. 즉 도시의 사회지역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개념은 사회적 공간(social space)이란 개념이다. 사회적 공간은 도시내에서 각각 모자이크 형태를 띤 주거차원의 동질공간을 의미한다.

사회적 공간은 경제적 지위, 사회적 가치관, 사

* 경북대학교 지리학과 강사

회적 선호 또는 열망이 서로 비슷한 인구집단들이 모여서 서로 다른 주거지역을 형성한다. 사회공간의 모자이크라 함은 도시전체로 볼 때 이질적 사회집단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화되어 독특한 주거공간을 구성하는 지역의 한 단위로 간주한 것이다.

이때 한 지역단위로서의 사회공간은 사회적 거리가 서로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이루어진 특성이 강하다. 따라서 Shevky와 Bell 그리고 Williams는 도시지역을 사회적 계층(social rank, prestige value), 도시화(urbanization), 격리의 세 가지 차원에서 분류하는 포괄적인 도식을 전개하고 있다. Bell은 실제도시인 샌프란시스코의 네 개의 센서스 구역을 선택하여 사회지역분석법을 적용하여 분석하기도 하였다. Greer는 사회계층 및 통합의 지표는 유사하지만 도시화의 정도에서만 차이가 나는 경우의 이유관계를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사회지역분석법은 그 창안자들이 시사했던 것과 같이 생태학적 과정에 대한 이론 및 지식을 형성하는데 다양한 유용성을 지닌 유형론임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사회지역이론은 정부의 통제하에서 주거가 결정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2차대전 이전의 폴란드의 수도인 바르샤바에서는 사회지역이론이 적용되었지만 사회주의국가로 변화된 1945년 이후에는 같은 현상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유형학이란 사물의 분류, 종류 또는 유형에 대한 집합이기에, 이의 발전은 과학에 있어 일반적이고 강력한 도구가 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 이의 목적은 오늘날 대도시지역에 존재하는 근린지역의 유형을 식별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살펴보는 데 있었다. 사회지역분석의 본래의 목적중에 하나는 주거지역에 대한 유형학을 발전시키는 데 있었다.

본 연구는 대구시에 거주하며 경제적·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에 있는 저명인사를 대상으로 사회지역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는 도시내의 불량주거 또는 저소득층의 주거에 관한 기존의 고찰과 더불어 의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구시의 주거지역 발달과정을 먼저 파악하고, 이들 저명인사의 일반적 특성과 저명인사의 지역별, 구별, 동별 분포 특성, 도시공간구조와 저명인사의 거주지역, 저명인사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의 특성을 고찰하여 주거

지역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와같은 구조를 형성한 동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신뢰도가 높은 여러 언론기관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 선정된 동아연감(1986, 1996)에 수록된 인사들을 주자료로 이용하고 매일명감도 일부 이용하였다. 동아연감에서 인명록에 수록된 인사들의 선정기준인 전·현직국회의원, 광역시·도의 국장급 및 구청장, 시장·군수, 광역의회 의원·기초의회 의장, 판·검사 및 유명변호사, 대학의 총장, 학·처장, 저명교수, 저명학교장, 시·군·구교육장, 시·도종합병원장, 유명병원장, 사회단체지부장, 방송국장 및 지방방송본부장, 신문사 국장급이상, 중앙은행 지역본부장 및 지방은행 간부, 농·수·축협 지회장, 예총지회장, 예술계 유명인사, 기타 저명인사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오래된 자료로는 대구읍지, 대구부읍지, 동국여지비고, 대구일반, 대구민단사, 신구대조조선전도군면리동명칭일람, 최근대구요람, 市街地の商圈 등을 이용하였다.

2. 대구시 주거지역의 발달과정

1) 광복 이전

과거 대구시의 주거지역은 구성벽내에서 남부로부터 서남구룡상까지 확장하고 있었으며 그 발전의 방향은 남부, 서남부, 서편의 구룡군 중 침식곡을 향하고 있었다. 이곳은 현재의 남산동, 대명동, 비산동 일대에 해당된다. 일본인이 내왕하기 시작하였던 초기의 한국인은 지금의 동성로, 서성로, 남성로, 북성로에 구축되어 있었던 성벽내에 집중 거주하였다. 이 시기에도 최근까지 가옥구조로 보아 성내는 부유층이 거주하고 있었고 성외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조선시대로부터 대구의 중심은 성안이었는데, 이곳은 경상감영을 핵으로 한 도심부 그 자체였다. 병자수호조약 이후 일본인들이 대구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성내에는 이미 원주민 중의 세력있는 층이 조밀하게 거주하고 있어 외래인의 성내입주를 강하게 거부하였다. 거류일본인들 또한 그 대부

분이 별다른 재력도 없이 徒手空拳¹⁾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부득이 원주민이 별로 거주하지 않아 넓은 농토가 있던 성밖의 동부와 저습지인 북부에 입지할 수 밖에 없었다. 현재의 삼덕동, 동인동, 공평동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구성내의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던 곳은 '긴골목'²⁾으로 대표되는 비계획적이고 자연발생적인 미로형의 가로망이 지금도 그대로 많이 잔존하고 있는데 비해서, 일본인들이 신설한 거주지는 계획적 가로망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상이한 이중적인 도시구조는 식민지 도시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성벽의 철거는 한·일인간 거주지역 장벽을 파괴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일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은 이 기회에 성내의 요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일시에 자산을 늘리게 된다. 이때부터 한국인 거주지역에 침입하기 시작한 일본인들은 한일합방이 이루어지자 총독부에 의한 정치적 비호와 그들의 경제적 우세를 이용하여 상권을 신장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舊城郭內의 한국인 거주지역을 잠식하게 된다. 이에 쫓긴 한국인들은 구 교통계인 경부가도와 서문시장의 인접지 서남부의 구릉지대에 주로 정착하게 되었다. 일본인 거주지역의 핵심은 구성밖의 동부와 대구역부근의 沱漚原이었다. 이곳을 기점으로 신공영가도(태평로)에서 구성밖의 동문까지, 여기에서 다시 성내의 서북으로 달려 서소문까지, 여기에서 서북으로 연장되어 달성동의 동북방의 안동가도에 접한 지역까지 일본인들의 거주지가 되었다. 당시 일본인 거주지역의 발전방향은 주로 동부 新川河畔까지의 땅으로 확장되어가고 있었다(邊捨藏, 1936, 267~268).

이렇게 거주지역이 분리된 것은 新來의 일본인들이 성밖동부의 광활한 농지에 신시가를 설치한 데 더하여, 철도의 개통과 더불어 성벽이 철거되고 停車場을 중심으로 하여 점차로 舊城郭內에 침입하여 당시의 일본인 거주지역을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주차장을 중심으로 일본인 상가를 형성하여 토지자본을 확장시키는 것은 일제침략의 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예는 수원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었다.

<표 1>의 한국인과 일본인의 거주지역을 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전자는 미로형의 불규칙적인 가로망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며, 후자는 직선의 규칙적인 가로망을 구축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한국인 거주지역에는 한옥이, 일본인 거주지역에는 敵産家屋이 현재까지도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 있어 과거를 반영하고 있다. 현재의 도시구조는 과거의 思考와 計劃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다는 일반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패턴이기도 하다.

일본인 거주지역 중 특히 공평동은 최고급 주택지로 계획되어 도심부의 핵지대와는 도보로 5~10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이곳은 다른 거주지에 비해서 가로폭도 넓고 고급주택이 입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80년대 초반까지 계속해서 고급주택지로서 명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최근에 와서야 토지이용 遷移(succession)가 비로소 이루어지고 있다. 적어도 50년간은 일본인들이 계획한 도시구조가 별다른 변화없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표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분화의 원인은 <그림 1>과 같이 일본인 측이 新交通系의 鐵道線路에 의존하고 있는데 대하여, 조선인 측은 舊交通系인 경부가도와

표 1. 민족별 거주지 분화(1933)

(단위 : %)

구 분	거 주 지 역 (동)
한국인 90% 이상 거주	남산동(100), 상서동(100), 하서동(100), 계산동 1가(100), 계산동 2가(99), 대신동(99), 장관동(98), 달성동(98), 남성로(97), 인교동(97), 종로1가(97), 종로2가(97), 동산동(96), 수동(96), 서야동(96), 덕산동(96), 시장북로(93), 봉산동(91)
일본인 80% 이상 거주	완전동(95), 상덕동(94), 봉덕동(94), 동문동(93), 공평동(91), 동성로 1가(86), 북성로 1가(86), 향촌동(82), 화전동(81), 대안동(80), 동성로 2가(80).

자료 : 邊捨藏(1936), 289; 대구시(1973), 339.

서문시장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지역간에는 긴밀한 교호작용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식민지 도시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볼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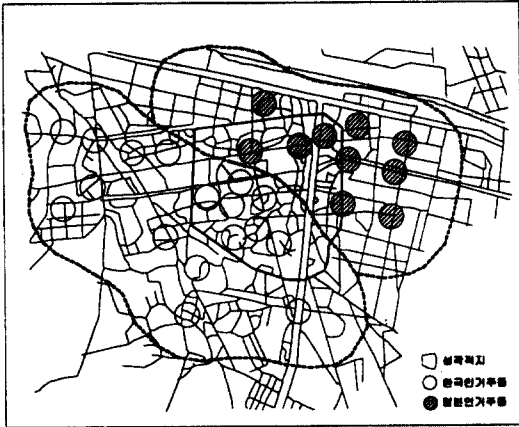


그림 1. 민족별 거주지 분화(1993)

당시 대구부의 한국인 거주지역의 실상을 나타 내 주는 것으로 “대구부 道路政策 差別施設을 痛擊 - 조선인촌은 악취가 코를 찌러, 府會에서 激論數 時間 -”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³⁾ “大邱府會 제七日인 二十八日의 예산안 전부의 第二讀會에서 林尙助, 徐炳和, 許智 등 三代로부터 大邱府의 현상으로 보아 신년도 예산에 계상한 종합운동장과 도로포장은 너무 사치한 시설이라 반격하였으며 그 중 임상조씨는 장시간 痛擊연설을 하여 장내를 긴장케 했다. 그들이 열렬히 주장한 요지는 남산정을 필두로 명치정, 신정, 달성정 일대의 대구의 서남부에는 도로나 하수도가 아직도 원시시대의 그것을 방불케 하여 한번 비가 내리면 곧 진흙바다로 화하여 보행이 곤란케 됨은 물론 더욱 夏節의 하수구란 악취가 코를 찌르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더구나 수천호가 즐비하게 모여있는 남산정에는 도로하나 변변한 것이 없어 만일 화재의 불행이 있을 때는 소방자동차의 내왕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이러한 한심한 시가를 갖은 대구부에서 다액의 돈을 들여 운동장이니 아스팔트니 하는 것은 실로 기형적 시설의 모순이라 격론하고 前記 두 가지 예산에는 절대 반대를 표

명하였다.”

일본인 외의 외국인 거주지역을 보면, 歐美인은 주로 동산지대에 집단거주하고 있었다. 중국인은 상업, 농업 등에 종사하며 동인동, 남산동, 봉산동 등지의 한국인 거주지대에 散在, 거주하였다. 특히, 종로(종로호텔 부근)를 따라서 대구의 China town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중국인들이 집중하여 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지금도 이 일대에는 중국 음식점이 많고, 그들의 거주지역이었음을 나타내는 華僑學校⁴⁾가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민족적 居住地域 分離는 서울, 부산, 특히, 인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의 대다수는 일인식민지정책 밑에서 건설 개발되고 또 성장해 왔다. 일본인들은 그들이 만든 철도역전과 항만지역에 일본식도시를 건설하였고, 古來의 전통도시의 경우에도 구시가지 를 피하여 역시 역전 혹은 항만·부두를 중심으로 계획적인 신시가지를 형성하였다.

우리나라 도시는 인도, 印尼, 印支地方의 식민도시와 같이 두 개의 이질적인 도시구조와 도시경관을 나타냈다. 대구도 각방면에 걸쳐 한국식과 일본식의 대립 혹은 병존을 보게되었다. 즉, 재래의 미로식 가로에 대하여, 새로이 건설된 직교식가로, 정기시장에 대하여 상설점포, 상설시장, 土壁에 대하여 板壁, 한국어와 일본어, 그리고 가옥의 건축양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활양식에 있어서 뚜렷한 외관의 대조와 그 혼재를 보여주고 있다. 일부지역에서는 우리의 전통적인 건축물을 일본식으로 개조하기도 하였다. 역사적 구도시인 대구는 한국인 거주지와 일본인 거주지가 뚜렷하게 분리되지는 않았으나 도시계획, 정치적 경제적 압력에 의해서 도시중심부와 우위주택지를 일본인이 점거하여 그들의 상가와 거주지가 한국인의 그것을 능가하는 도시구조로 변화되었다.

대구부를 중심으로 철도망 형성과 第一期 治道 期間(1911~1917)에 의해서 국도가 방사상으로 정비됨에 따라 대구부는 전국주요도시와 시간거리가 단축되고 더 넓은 배후지역에 대해서 중심도시로 기능이 강화되었다. 府內에서는 1909년 간선도로의 폭을 넓혀 현재의 대구경찰서를 중심으로 십자형가로로 개수하고, 이어서 동성정(동성로) 3정

표 2.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

시행자	지역명	동명	면적	시행시기
대구시	1. 제1토지	대봉, 동인, 삼덕, 칠성동	853,504	40.8-58.9
	2. 침산지구	침산동	861,874	41.3-58.9
	3. 제2토지	대명, 내당, 성당, 대봉동	1,427,219	56.12-68.9
	4. 제3토지	고성, 칠성, 노원동	680,380	43.3-64.4
	5. 제6토지	수성4가	767,943	65.12-68.9
	6. 제10토지	내당, 성당동	420,638	65.11-69.5
	7. 제3공단	침산, 노원, 비산동	3,436,750	67.8-70.5
	8. 대명지구	대명동	3,075,880	67.8-70.11
	9. 신암지구	신암, 산격, 대현동	419,864	67.8-70.3
	10. 동부지구	신천, 효목, 신암, 만촌동	4,384,089	69.5-74.12
	11. 성당지구	성당, 대명동	823,557	69.7-72.6
	12. 범어지구	범어, 만촌동	2,852,690	70.3-72.12
	13. 수성지구	범어, 중, 상, 두산, 지산동	3,369,507	72.4-78.5
	14. 서부지구	평리, 중리, 내당동	3,279,600	72.4-78.5
	15. 대구역	칠성, 태평로	254,102	73.3-74.5
	16. 북부지구	산격, 복현, 신암동	1,443,454	73.1-77.12
	17. 내당지구	내당, 성당, 감삼, 죽전동	3,128,456	75.3-77.12
	18. 만촌지구	만촌동	388,881	81.6-84.12
	19. 지산지구	지산, 두산동	372,268	81.6-84.12
조합	20. 제4토지	산격동	376,211	60.12-68.7
	21. 제5토지	수성동	767,211	63.3-66.11
	22. 제7토지	봉덕동	378,333	63.7-66.3
	23. 제8토지	원대동	543,894	63.7-66.3
	24. 제9토지	대명동	384,571	62.12-66.8
	25. 달서지구	송현, 본리, 성당, 감삼동	2,949,366	73.5-79.1
	26. 공수지구	범어동	67,117	76.8-79.1
	27. 송현지구	송현동	965,000	79.11-84.12
	28. 죽전1지구	죽전동	108,000	81.12-84.8
29. 죽전2지구	죽전, 용산, 감삼동	210,000	83.4-87.5	
계	29개지구		38,991,091	

자료 : 대구직할시(1989), 324~325.

목에서 남동쪽의 가로망을 정비하였다. 1924년 이후에 구읍성 외곽에 시행한 제2, 3기 시가지 치도 공사는 오늘날 대구시가지의 골격이 되고 있으며 당시 이들 가로를 따라서 외곽지의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1937년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따라 지금의 도심부 및 동인동 삼덕동에 비교적 직교식에 가까운 시가지계획을 세워 실시하였다. 그 후 여러번의 보완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의 주거지였던 동인동,

삼덕동 일대는 지금도 손을 대지 않아도 좋을 만큼 노퍽이나 상하수도의 시설이 잘 되어 있다. 그러나 시가지 내부에는 자연발생적인 소로가 그대로 남아 있어 보안, 방화, 통풍, 미관상 많은 난제를 안고 있었다.

제1토지 구획정리사업은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40년에 대봉, 삼덕, 동인, 칠성동 일대의 면적 853,504㎡에 대하여 시행한 것이 시초였다. 그 뒤 1941년에 공업 및 宅地造成事業을 침산동

대구시의 사회지역분석

일부지역에 시행하여 대구섬유공업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1943년에 제2토지구획정리사업을 착수하여 공업단지의 배후택지를 조성하였다.

2) 광복 이후

1945년 광복직전의 일제에 의한 건축재정에 따라 국내의 공익사업은 중단상태에 이르렀고, 이어 광복을 맞이하여 해외동포의 귀환과 북한으로부터의 월남동포, 이촌향도의 큰 흐름으로 대구에도 도시의 인구 유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구의 격증으로 주택난이 심해지고 1가옥에 수세대가 밀집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즉 제2차 순환선 주변인 신암·신천·비산·평리·내당동 일대와, 대구역 뒷편과 新川 건너편이나 산비탈에 전쟁피난민 등 무주택자는 대부분 판자집과 假建物인 바라크를 짓고 있었다. 당시 대구시의 미관을 해치는 바라크 등 가건물을 단속한다는 내용의 “市美化上 恠한 無許可 바라크, 이어서 허가없는 건물을 부에서 엄중처벌”이라는 보도는 그 실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⁵⁾ 그리고 미군용의 빈칸을 펴서 만든 캔지붕의 판자촌도 시내 곳곳에 들어서기 시작하는 등 주택의 양적부족과 함께 주민의 질적수준이 크게 하락한 불량한 슬럼가를 형성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였다.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하나의 도시지역내에서도 성장하는 지역이 있고 침체하는 지역도 있으나 이 시기에 있어서는 침체지역이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침체하는 지역은 도시병리학(urban pathology)에서는 병든 곳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불량지구는 도시가 生態의 변화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간접자본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인 것이다. 대구에서는 6.25 전쟁 때 난민들이 불법으로 건축한 무허가 건축지역이거나 오래된 주택지역이 불량지구에 해당된다. 불량지구는 위생시설의 불비로 질병의 발생이 용이하며 빈곤계층의 집단적 거주로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일제시대의 토막촌이나 해방이후 대규모 판자촌은 급격한 도시인구의 증가도 원인이겠으나 그 內的 동인으로서의 산업화 과정이 결여된 채 전개된 이유도 있다. 시가지의 확산도 인구의 팽창에 따라 더 급속화되고 무계획, 무질서

하게 뻗어 나갔다.

1950년대에는 여전히 사회적인 혼란기가 계속되어 도시개발사업이 침체된 가운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56년 12월 제2토지(1,427,000m²) 한 곳에 착수되었다. 아울러 전술한 바와 같이 1940년과 1941년에 착수한 제1토지와 침산지구는 각각 1958년에 사업이 완료되기도 하였다. 또 1960년 12월 제4토지(376,000m²)의 착공을 보게 되었다.

3) 경제개발 이후

1960년대 후반부터 점차적으로 평리동에 문화주택단지, 대명동에 청구주택단지, 동인동에 국민주택단지가 조성되었다. 당시는 주로 상류계층이 입주하였으며, 같은 규모의 한양철충식 가옥구조로서 新興住宅地를 형성하였다. 동시에 한옥의 개인주택 건설도 병행되었다. 이와 같이 1960년대에는 단독주택에 의한 시가지의 연속적인 팽창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대하여, 서울보다는 상당히 늦었지만 주택보급율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1966년 대명동 공무원아파트 건설을 출발점으로 1968년 성당 시영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면서 아파트시대의 서막이 올랐다. 또 1974년과 1975년에 세워진 큰고개아파트와 동신아파트, 지금은 철거된 대봉동 한일맨션이 고급아파트의 인식을 심어주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토지구획정리지구에 산재적으로 황금지구, 평리내당지구, 산격지구, 복현지구, 범어지구, 달서지구 등지에 아파트가 건설되어 이를 중심으로 시가지가 연속화되어 나갔다.

70년대에도 토지구획정리사업(공단포함)은 계속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는 경제발전과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라 시가지의 평면적 확산이 반경 4~5km 권내의 각 방향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택지개발이 조성된다. 80년대 초에는 동부와 서부의 5km권외에서 이루어졌다. 즉, 도시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시가지 주변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아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심울 중심으로 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변으로 확장하면서 시행되었다는 것이다(그림 2). 이것은 주택지대의 郊外化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더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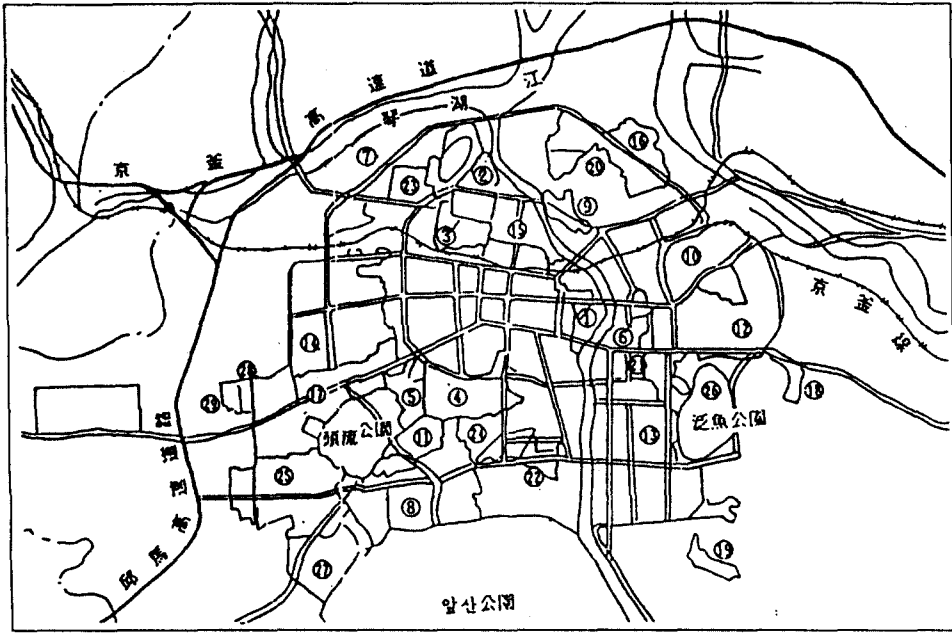


그림 2.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도

자료 : 대구직할시(1990), 174.

촉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1930년대 이후 택지개발의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80년대 초부터 급격히 공영개발사업으로 대체되고 있다.⁶⁾ 이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업구역 및 주변지역의 급격한 지가상승을 유발하였고, 평면적 도시개발에 의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특히 입체적 계획을 고려하지 않아 평면적 개발이 이루어진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근래에 들어와서 외곽지 개발은 오히려 고층화 경향을 보여 조화롭지 못한 도시구조를 나타내고, 또 건축물 시설의 지연으로 인한 기반시설투자의 효율성 저하, 환지계획에 대한 민원 증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

공영개발은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권력에 의하여 일괄매입하고 개발하여 필요한 용도에 분배하는 택지개발방식이다. 대표적인 공영개발사업은

택지개발예정지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그리고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및 국민주택용 대지조성사업 등이 있다. 주택지 공급을 위한 공영개발은 대부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에 의하여 시행하여 왔다.

대구시는 택지조성을 위해 1984년 불로지구를 시작으로 하여 <표 3>과 같이 1987년까지 5개지구 1,608,000m²를 시행하여 1987년에 완료하였다. 그후 1988년부터 칠곡1지구 등 11개 지구 11,345,000m²를 추진하여 현재는 완료하였다. 또 계획중의 택지개발 사업으로는 용산지구 592,000m²(1994~1997년), 장기지구 402,000m²(1994~1997년), 동서면지구 871,000m²(1995~1999년)등이 있으나 일부는 완료되어 있다. 이것 역시 도심으로 부터의 거리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표 3. 택지조성실적

구분	시행자	지구명	면적	사업비	시행시기	비고
완료	토지개발공사	불로지구	117	4,251	'84-'86	
	토지개발공사	월배지구	631	20,542	'87-'87	
	토지개발공사	안심지구	483	17,597	'84-'87	
	주택공사	송현지구	218	9,814	'84-'87	
	대구직할시	둔덕지구	159	4,100	'85-'87	
	소 계		5개지구	1,608	56,304	
시행중	토지개발공사	칠곡1지구	1,861	197,346	'88-'92	
	주택공사	월성지구	880	56,166	'88-'91	
	대구직할시	지산지구	689	59,180	'88-'91	
	대구직할시	범물지구	760	74,360	'89-'92	
	대구직할시	장기지구	464	40,000	'89-'92	
	토지개발공사	성서지구	3,142	190,715	'89-'93	
	토지개발공사	칠곡2지구	616	75,600	'90-'92	
	주택공사	대곡지구	903	67,700	'90-'92	
	주택공사	안심 2-1	149	10,700	'90-'92	
	대구직할시	상인지구	948	106,100	'90-'92	
	대구직할시	시지지구	933	90,500	'90-'92	
	소 계		11개지구	11,345	968,367	'88-'92
합 계		16개지구	14,399	1,255,171		

자료 : 대구직할시(1990), 179~180.

서 공간의 면적도 따라서 증가하는 일반적인 공간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계획이기도 하다.

그 밖에도 부족한 택지확보와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노후된 공동주택단지나 영세민 집단주거지역 등을 대상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市는 지구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재개발사업지구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이나 용자 등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며, 노후화로 인한 붕괴 위험지역이나 주민들이 재개발을 희망하는 지구부터 단계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개발 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제도적 장치가 확보되어야 하고 비인간적인 철거이주방식, 제2의 불량주거지 생성이라는 악순환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재개발지구가 갖는 도시의 전체 계획상에 대한 기여도, 비중, 역할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한 도시공간구조 형성에 불가결한 요인일 것이다.

주택지는 도시공간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점유하고 있으며 주택의 개발과 주택의 건설은 도시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정책과 그 시책은 도시지역의 토지이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이르러 도시의 토지이용을 고도화하는 아파트건설이 성행하였다. 이는 주거단위를 밀집시킴으로써 인구수용을 극대화하고, 규격화하므로 건설이 능률적이라는 점외에 생활이 편리하다. 비록 공유는 하지만 넓은 공공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유리한 조건 등으로 적극적인 개발이 유도되어 왔다. 대구시의 공공개발사업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어 도시구조 및 도시기능, 주생활양식, 도시경관에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3. 대구시 거주 저명인사의 분포 특성

1)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표 4. 대구시의 현황

구분 지역	면적(km ²)	인구(人)	행정동수
중구	7.09(1.5)	115,368(4.9)	19
동구	182.35(39.8)	354,290(15.0)	26
서구	17.51(3.8)	344,134(14.5)	21
남구	17.46(3.8)	229,970(9.7)	16
북구	95.49(20.8)	380,733(16.1)	28
수성구	76.47(16.7)	457,130(19.3)	21
달서구	62.29(13.6)	483,690(20.5)	19
합계	458.66(100)	2,365,315(100)	150

주 : ()안은 %

먼저 분석대상지역인 대구시의 1995년 인구분포는 <표 4>와 같이 구별로는 가장 많은 지역이 20.5%를 차지한 달서구가 483,690명이고, 수성구 457,130명, 북구 380,733명의 순이다. 인구분포가 적은 지역은 남구가 9.7%인 229,970명이며, 중구가 4.9%인 115,368명으로 가장 적다.

면적비율은 동구가 39.8%인 182.35km²로 가장 넓고, 북구 95.49km², 수성구 76.47km²순이며 중구가 1.5%에 해당하는 7.09km²로서 가장 좁다. 행정동이 가장 많은 구는 북구가 28개동, 동구 26개동, 수성구와 서구가 각 21개동의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남구의 16개 동이다.

표 5. 저명인사의 직업별 분포

직업 \ 구분	수	비율(%)
학계 및 의학계	367	49.1
경제계	109	14.6
공무원 및 정계	107	14.3
법조계	86	11.5
언론 및 사회·문화계	79	10.5
합계	748	100.0

(1) 저명인사의 직업별 분포

대구시에 거주하는 저명인사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들 저명인사는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들의 특성상 몇 가지 직업에 한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저명인사와 관련된 직업을 자료수집의 어려움과 분석의 편의를 고려하여 <표 5>과 같이 5개 분야를 대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들의 직업별 분포로 보면 학계 및 의학계가 367명으로 49.1%를 차지하고 있다. 의학계에는 현업 의사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경제계가 14.6% 공무원 및 정계가 14.3%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이 학계가 경제계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지역의 산업집중도가 낮은 편이며, 반면에 과거 전통의 교육도시로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정계의 분포가 많을 듯 하지만 대구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표 6. 저명인사의 주택형별 분포

구분 주택	1986		1996	
	수	비율(%)	수	비율(%)
단독주택	120	33	325	43
집합주택	240	67	423	57

(2) 저명인사의 주택형별 분포

대구시 거주 저명인사의 주택의 유형별 구분을 보면 <표 6>과 같다. 저명인사들은 아파트, 연립주택등의 집합주택에 전체의 57%인 423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구시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집합주택비율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그러나 1985년 이후 지난 10년간 저명인사들이 집합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2) 저명인사의 분포 특성

(1) 저명인사의 區別 분포

저명인사의 구별 분포 내용을 보면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성구에 344명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며 46%를 차지하고 있다. 두번째로 남구 153명, 세번째로는 중구에 91명이 거주하고 있다. 저명인사가 가장 적게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서구(24명), 북구(37명), 동구(38명)의 순으로 나타

표 7. 대구시 저명인사의 구별분포(1995)

區名	구분	인구(A)		저명인사(B)		B/A×10,000
		수	비율(%)	수	비율(%)	
중구		115,368	4.9	91	12.2	7.9
동구		354,290	15.0	38	5.1	1.1
서구		344,134	14.5	24	3.2	0.7
남구		229,970	9.7	153	20.4	6.7
북구		380,733	16.1	37	4.9	1.0
수성구		457,130	19.3	344	46.0	7.5
달서구		483,690	20.5	61	8.2	1.3
합 계		2,365,315	100.0	748	100.0	3.0

나고 있다. 그러나 인구분포 비율에 따른 밀집도의 경우에는, 중구가 인구 10,000여명당 7.9명으로 높은 밀집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중구가 전통적인 주거지역이라는 이유 이외에도 도심 소재 학교의 이전적지에 건립된 집합주택(청운, 황실 등)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2) 저명인사의 洞別 분포

저명인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은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성구 범어4동의 41명이며, 수성구 수성1가동과 남구 봉덕2동이 각각 39명으로 나타나고 다음 중구 대봉1동(33명), 남구 봉덕3동(30명)의 순이었다. 한편 이러한 저명인사 거주지 분포의 밀집현상은 인구 10,000명당 저명인사수로 나타낸 <표 10>에 의하면, 분포 밀도에 있어서는 1위는 중구 대봉1동이며 그위는 남구 봉덕2동 등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저명인사의 동별 절대수와 동별 분포밀도가 상위 6위까지 모두 같은 동들이 포함되어 있는등 이들의 두가지 순위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저명인사들이 특정지역에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가설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저명인사 밀집순위 상위 25개동의 지역별 분포 상황을 보면,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6개동, 중구에 2개동이다. 동구와 달서구가 각 1개동이다. 상위 25개동에 포함되는 동을 하나도 갖지 못

표 9. 저명인사의 동별분포 순위

순위	구	동	수
1	수성구	범어4	41
2	수성구	수성1가	39
3	남구	봉덕2	39
4	중구	대봉1	33
5	남구	봉덕3	30
6	수성구	만촌2	27
7	수성구	황금1	24
8	수성구	범어1	23
9	수성구	지산2	23
10	수성구	지산1	22
11	남구	대명9	19
12	남구	대명1	18
13	수성구	범어2	17
14	수성구	중동	15
15	달서구	본동	14
16	중구	남산4	11
17	수성구	수성2,3	11
18	수성구	황금2	10
19	수성구	범어3	9
20	동구	공산1	9
21	남구	이천1	9
22	남구	대명5	8
23	수성구	상동	8
24	수성구	두산동	7
25	수성구	수성4	7

하는 구로는 서구과 북구가 있다. 이와 같이 저명

인사의 거주분포가 구별로도 매우 불균형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저명인사수 2인 이하의 동은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이들은 북구의 노원1, 2동과 같이 도시형 공업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경우와 중구의 도심에 인접하여 인구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이다.

또 동·수성구의 그린벨트에 해당된 지역과 자연부락형태로 형성된 지역이나, 서·북·달서구 등

표 10. 저명인사의 동별분포 밀도(인구1만명당 순위)

순위	구	동	인구	밀도
1	중구	대봉1	8,428	39.2
2	남구	봉덕2	17,977	21.7
3	수성구	범어4	24,237	16.9
4	수성구	수성1가	20,232	16.3
5	수성구	만촌2	17,787	15.2
6	남구	봉덕3	22,388	13.4
7	남구	대명1	15,071	11.9
8	수성구	범어1	20,224	11.4
9	남구	이천1	8,001	11.2
10	수성구	범어2	15,352	11.1
11	남구	대명9	18,830	10.1
12	수성구	황금1	23,909	10.0
13	동구	공산1	9,250	9.7
14	수성구	지산2	29,823	7.7
15	수성구	중동	19,816	7.6
16	수성구	상동	21,314	7.5
17	달서구	본동	19,656	7.1
18	수성구	범어3	13,233	6.8
19	수성구	지산1	33,029	6.7
20	수성구	수성2, 3	16,828	6.5
21	중구	남산4	17,422	6.3
22	남구	대명5	12,698	6.3
23	수성구	두산동	11,369	6.2
24	수성구	황금2	17,029	5.9
25	수성구	수성4	12,796	5.5

표 11. 저명인사 밀집동(상위 25개동)의 區別 분포

구분	밀 집 동	동수
중구	대봉1, 남산4	2
동구	공산2	1
서구		0
남구	봉덕2, 봉덕3, 대명9, 대명1, 이천1, 대명5	6
북구		0
수성구	범어4, 수성1가, 만촌2, 황금1, 범어1, 지산2, 지산1, 범어2, 중동, 상동, 수성2,3가, 황금2, 만촌1, 범어3, 두산동	15
달서구	본동	1

에 나타나는 것으로 초기의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영택지 개발사업으로 저밀도 아파트지구가 형성된 지역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3) 저명인사 분포의 변화

(1) 1985년의 분포특성

1985년의 대구시 거주 저명인사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지역은 <표 13>과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성구(표준점수 1.29)와 남구(표준점수 1.26)이며, 상대적으로 비교적 높은 분포를 보이는 지역은 중구(표준점수 0.25)로 분석되었다.

이당시 저명인사의 분포특성을 살펴보면 역시 도심의 전통적인 주거지역인 중구와 더불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된 지역중 수성구와 남구에 밀집되어 있다. 특히 1974년의 재정비 계획부터 용도지역이 세분화되어 대구에도 수성동과 만촌동, 대명동의 일부지역에 집단적으로 지정되어 운용되어 온 주거전용지역은 도시구조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주거지역이 세분된 이유는 종래까지 주거지역내에는 소규모 가내공장, 요리점,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이를 제한하고자 주거전용지역이 지정되었다. 준수

표 12. 저명인사가 희소한 동(2인 이하 거주동)

구분	저명인사가 희소한 동	동수
중구	공평동, 동성로, 봉산동, 계산동, 남성로, 대안동, 동일동, 사일동, 동문동	9
동구	도동, 평광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입석동, 검사동, 둔산·부동, 신평동, 공산2동, 신암1, 신암2, 신천3, 신천4	16
서구	내당1, 내당2, 내당3, 비산	3
남구	대명1, 대명3	2
북구	고성동, 산격1, 대현1, 대현2, 대현3, 노원1, 노원2, 칠성1, 칠성2, 침산2, 침산3	11
수성구	고산3	1
달서구	성당1, 성당2, 상인2, 상인3, 두류	5

표 13. 대구시 거주 저명인사의 표준점수(1985년)

구	학계 및 의학계		경제계		공무원 및 정계		법조계		언론 및 사회 문화계		전체	
	빈도	표준점수	빈도	표준점수	빈도	표준점수	빈도	표준점수	빈도	표준점수	빈도	표준점수
중구	77	0.14	20	0.41	11	0.41	14	0.49	14	0.31	136	0.25
동구	24	-0.93	4	-1.15	2	-1.28	2	-1.26	4	-0.94	36	-1.06
서구	31	-0.79	11	-0.47	6	-0.53	9	-0.25	6	-0.69	63	-0.71
남구	120	1.02	36	1.96	17	1.55	17	0.91	23	1.44	213	1.26
북구	21	-0.57	9	-0.66	4	-0.91	2	-1.26	2	-1.19	38	-1.03
수성구	147	1.57	15	-0.08	13	0.79	20	1.35	20	1.06	215	1.29
계	420		95		53		64		69		701	
평균	70.0		15.8		8.8		10.7		11.5		116.8	
σx	49.2		10.3		5.3		6.9		8.0		76.3	

거지역·주거지역은 최소대지면적이 27평인데 비해 주거전용지역의 최소대지면적은 60평(신설)이다. 최소대지면적이 비교적 넓게 규정되고 건축밀도가 낮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이룰 수 있는 이들 주거전용지역은 부유계층의 주거집단을 형성하면서 대구의 신흥고급주택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된다. 이는 도시계획이라는 제도가 사회적 계층의 공간적 분화를 일으켜 교육시설의 과밀, 주택가격 상승, 지역간의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도시구조와 사회의 문제를 야기시킨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또 만촌동의 주거전용지역에는 교수촌이 형성되어 학계인사의 집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1995년의 분포특성

표준점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1995년의 대구시 거주 저명인사의 분포상황은 <표 14>와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1995년의 경우, 저명인사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지역은 수성구(표준점수 2.26)이며, 남구(표준점수 0.44)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13>과 <표 14>를 비교해 보면, 1985년에 비해 1995년은 수성구의 경우 현저한 증가를 보인다. 이것은 수성구에 지산지구, 범물지구, 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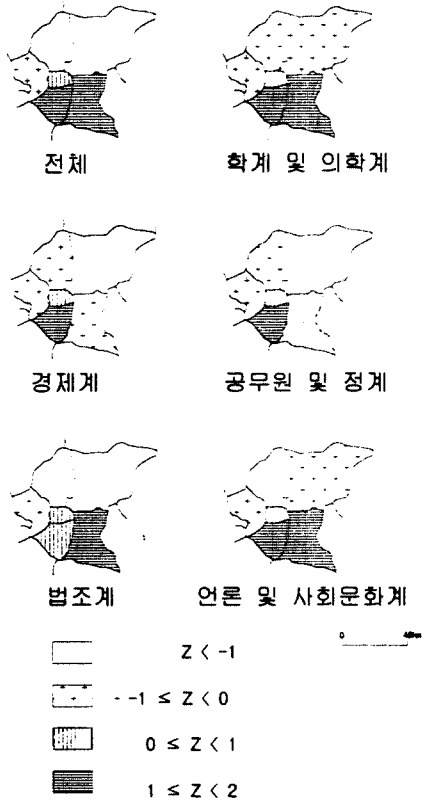


그림 3. 대구시 거주 저명인사 분포(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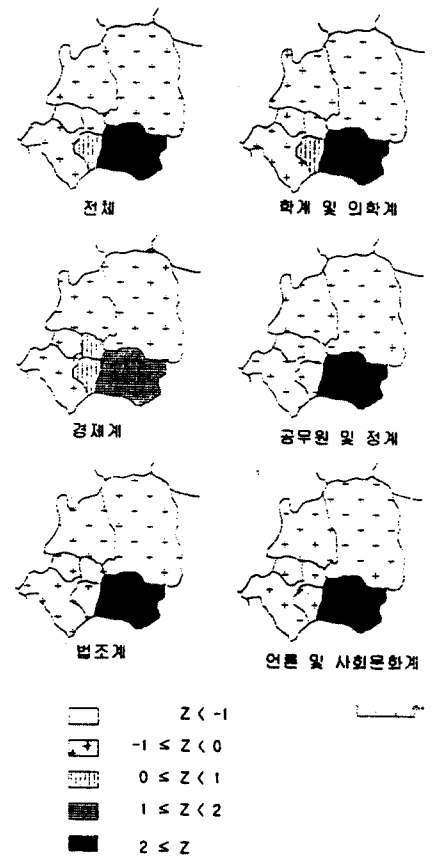


그림 4. 대구시 거주 저명인사 분포(1995)

표 14. 대구시 거주 저명인사의 표준점수(1995)

직업 구	학계 및 의학계		경제계		공무원 및 정계		법조계		언론 및 사회 문화계		전체	
	빈도	표준점수	빈도	표준점수	빈도	표준점수	빈도	표준점수	빈도	표준점수	빈도	표준점수
중구	42	-0.21	20	0.22	9	-0.49	10	-0.12	10	-0.11	91	-0.15
동구	16	-0.72	3	-0.63	12	-0.25	0	-0.65	7	-0.36	38	-0.66
서구	13	-0.78	5	-0.53	5	-0.80	0	-0.65	1	-0.87	24	-1.01
남구	84	0.62	30	0.73	14	-0.10	14	0.09	11	-0.02	153	0.44
북구	21	-0.62	4	-0.58	7	-0.64	2	-0.54	3	-0.70	37	-0.67
수성구	164	2.20	38	1.13	46	2.37	57	2.37	39	2.35	344	2.26
달서구	27	-0.50	9	-0.33	14	-0.10	3	-0.49	8	-0.28	61	-0.44
계	367	.	109	.	107	.	86	.	79	.	748	.
평균	52.4	.	15.6	.	15.3	.	12.3	.	11.3	.	106.9	.
σx	50.8	.	19.9	.	12.9	.	18.9	.	11.8	.	105.0	.

대구시의 사회지역분석

지구에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영향이 크다. 이러한 공영택지의 개발외에도 개별주택회사가 요지에 해당하는 곳을 매입하여 건립한 지역(범어동의 가든 하이츠, 장원아파트 등)과 주거불량지역을 재개발하여 건립한 지역(범어동의 궁전아파트등)도 저명인사의 밀집분포현상을 유발하였다.

또 학교등 공공용지의 이전에 따라 건립된 고급 아파트 지역(대륜중고 이전 적지의 신세계 아파트, 오성중고 이전적지의 오성아파트, 코오롱대구공장 이전적지의 수성보성아파트, 수성쌍용아파트 등)의 영향도 크다.

주거지역의 인문환경 가운데는 그 중요한 요소로서 교통, 생활편익시설의 상태, 이웃주민의 수준, CBD와의 거리, 교육시설, 근린주구내 주택의 상태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대구시의 경우 주거입지결정인자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학군이 저명인사의 분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지역 중에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와 시가지의 외곽 확대, 전원주택의 선호 경향 등 그 지역의 제반여건의 변화에 따라 저명인사의 밀집현상은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4. 결론

조선시대 축성이후 대구의 중심은 城안이었는데 이곳은 경상감영을 핵으로 하는 도심부 그 자체였다. 과거 대구시의 주거지역은 구성벽내에서 남부로부터 서남구룡상까지 확장하고 있었으며 그 발전의 방향은 남부, 서남부, 서편의 구룡군 중 침식곡을 향하고 있었다. 이곳은 현재의 남산동, 대명동, 비산동 일대에 해당된다. 일본인이 내왕하기 시작하였던 초기의 한국인은 지금의 동성로, 서성로, 남성로, 북성로에 구축되어 있었던 성벽 내에 집중 거주하였다. 이 시기에도 최근까지 가옥구조로 보아 성내는 부유층이 거주하고 있었고 성외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의 한국인과 일본인의 거주지역을 보면 전자는 미로형의 불규칙적인 가로망을 보이

고 있는 지역이며, 후자는 직선의 규칙적인 가로망을 구축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한국인 거주지역에는 한옥이, 일본인 거주지역에는 敵産家屋이 현재까지도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 있어 과거를 반영하고 있다. 현재의 도시구조는 과거의 思考와 計劃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다는 일반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패턴이기도 하다.

일본인 외의 외국인 거주지역을 보면, 歐美인은 주로 동산지대에 집단거주하고 있었다. 중국인은 상업, 농업 등에 종사하며 동인동, 남산동, 봉산동 등지의 한국인 거주지대에 散在, 거주하였다. 특히, 종로(종로호텔 부근)를 따라서 대구의 China town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중국인들이 집중하여 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지금도 이 일대에는 중국 음식점이 많고, 그들의 거주지역이었음을 나타내는 華僑學校가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민족적 居住地域 分離는 서울, 부산, 특히, 인천에서의 현상과 일치한다.

1945년 이어 광복을 맞이하여 해외동포의 귀환과 북한으로부터의 월남동포, 이촌향도의 큰흐름으로 대구에도 도시외의 인구 이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구의 격증으로 주택난이 심해지고 1가옥에 수세대가 밀집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즉 제2차 순환선 주변인 신암·신천·비산·평리·내당동 일대와, 대구역 뒷편과 新川 건너편이나 산비탈에 전쟁피난민 등 무주택자는 대부분 판자집과 假建物인 바라크를 지어 불량주거지역이 형성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점차적으로 평리동에 문화주택단지, 대명동에 청구주택단지, 동인동에 국민주택단지가 조성되었다. 당시는 주로 상류계층이 입주하였으며, 같은 규모의 한양철충식 가옥구조로서 新興住宅地를 형성하였다. 동시에 한옥의 개인주택 건설도 병행되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토지구획정리지구에 산재적으로 황금지구, 평리내당지구, 산격지구, 복현지구, 범어지구, 달서지구 등지에 아파트가 건설되어 이를 중심으로 시가지가 연속화되어 나갔다.

1980년대에는 자료활용이 가능한 사회적·경제적으로 안정된 지위에 있는 대구시의 저명인사를 대상으로 분포특성을 통해 사회계층 분화를 분석하였다. 저명인사는 도심의 전통적인 주거지역인

중구와 더불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된 지역중 수성구와 남구에 밀집되어 있다. 또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지정된 주거전용지역은 부유계층의 주거집단을 형성하면서 수성동, 만촌동, 대명동의 일부지역이 대구의 신흥 고급주택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된다.

1990년대 저명인사의 분포특성은 수성구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남구, 중구의 순이다. 또 저명인사의 동별 절대수와 인구 1만명당 동별 분포 밀도가 상위 6위까지 모두 같은 동(범어4, 수성1가, 봉덕2, 대봉1, 봉덕3, 만촌2)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의 두가지 순위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명인사들이 특정지역에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1985년과 1995년의 변화특성은 저명인사의 기존밀집지역인 중구와 남구는 감소하고, 수성구에 현저한 증가를 보인다. 이것은 지난10년간 이 지역에 꾸준히 추진된 택지개발과 학교 등 공공용지의 이전에 따른 고급아파트 지역의 형성의 영향도 크며, 교통, 생활편익시설의 상태외에 주거입지 결정인자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학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註

- 1) 1910년말 대구에 거주한 일본인의 원거주지를 보면, 47개 부, 현에서 來住하여 거의 全國的인 分布를 나타내고 있다. 그 중 가장 많은 곳이 福岡이며 東京이나 京都같은 대도시 주민보다는 소도시, 그 중에서도 항구나 도서 주민이 많이 차지한다. 그것은 일정한 생업이 없거나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생업을 갖지 못한 자들이다.
- 2) 대구 토박이들은 '진골목'이라고 발음하고 있다. '진골목'은 중앙로 주택은행 지역본부 북쪽 옆에서 좁은 골목을 따라서 舊 정소아과 의원을 거쳐 종로 대남한의원 앞까지 비스듬하게 뚫린 골목을 말한다. 이외에도 壯觀洞골목(舊 상서여중고 南便), 射一洞, 南一洞(로얄호텔의 南西쪽 골목), 壽洞골목(금호호텔 東便), 桂山洞골목(동아쇼핑 北西便)등이 이 예에 속한다.
- 3) 東亞日報, 1935.3.30.(5).

- 4) 華僑 小學校(大邱市 中區 鍾路 2街 31番地 所在, 設立日 1943. 2.21)
- 5) 남선경제신문, 1946, 6.15.(3)
- 6) 1934년 제정된 조선시가지 계획령이 택지개발과 관련된 최초의 법령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1941년 6월 14일 제령 제23호 조선주택영단령에 의한 조선주택영단이 설립되어(同年 7.1) 공공택지 개발기관으로서 전국 각지에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대구에서도 부가 택지조성을 하고 있던 東雲 1·2區(現 동인동)와 南山 1區의 13,000餘坪(동운 5,412평, 남산 7,599평)을 영단이 매입하였다. 공원 및 노무자 舍宅建設도 서울, 부산, 대구 등지에서 있었는데 大邱는 七星町(現 칠성동의 시민운동장 인근)의 6坪型 聯立住宅(100戶)이 조선운수노무자 사택이었다. 해방후에는 미군정 보건후생부 주택국의 감독하에 옮겨졌다가 정부수립과 동시에 중앙관재처의 관할하에 들어갔는데, 이때부터 大韓住宅營團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기존주택을 관리하고 피난민구호용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택지를 개발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5·16이후 조선주택영단 등 舊法整理의 하나로 1962년 7월 1일 건설부 관할의 대한주택공사가 설립되어 주택에 대한 공공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주택건설과 함께 택지개발을 시행해 왔다.

文 獻

- 강보철, 1967, 조선시대 도읍의 형성과정, 도시문제, 2, 58~72.
- 김인, 1991, 도시지리학원론, 법문사, 서울.
- 김인수, 1993, 대구시 거주지역의 분화,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여흥구·금기반, 1991, 서울시 거주자의 입지분포 특성 및 이동패턴 분석연구, 국토계획, 26(2), 95~123.
- 예경희, 1994, 사회지리학, 청주대학교 출판부, 청주.
- 이기석, 1980, 대도시 거주지 분화와 패턴에 관한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국의 도시와 촌락 연구, 보진재, 서울, 127~171.
- 田井養通, 1984, 廣島市における住宅團地の形成とその居住地域構造, 人文地理, 27(6), 60~88.

대구시의 사회지역분석

- 정승일·박양춘, 1989, 대구의 주거지역분화에 관한 연구, **창과 이태영 총장 퇴갑 기념논총**, 617~635.
- 최석주, 1994, 대구시 도시계획의 지리학적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석주, 1996, 大邱市 都心部의 街路網 變化, **대한지리학회지**, 31(3), 593~612.
- 최원희, 1985, 인천시의 거주지역분화와 공간패턴에 관한 연구, **지리학과 지리교육**, 15, 44~71.
- 홍두승, 1983, 직업분석을 통한 계층연구,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5(3), 69~87.
- Elgie, R.A., 1986, The segregation of socioeconomic groups in urban areas : A comment, **Urban Studies**, 16, 190~199.
- Harris, R., 1984, Residential segregation and class formation in the capitalist cit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1), 26~49.
- Knox, P., 1995, **Urban Social Geography**, 3rd ed., Longman, London.
- Massey, D.S., 1987, Social class and ethnic segregation : A consideration of methods and conclus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 641~650.

Analysis on Social Area of Taegu

Seok-Joo Choi*

Summary

Today, rapid progress of urbanization is discovered commonly in many countries, especially in developing countries, which has led to spatial order and development process of city.

Historically, Taegu was a walled city and formed mono-nucleus which was restricted by the castle. As the city grew gradually, the castle was removed as a result of diversification in traffic network, change of socio-economic environment, formation of industrial base and functional distribution. According to reconstruction maps of residential patterns, there was distinctive residential segregation among ethnic groups. Koreans in Taegu in 1939, aggregated densely in the southern and western parts of the city. The Japanese were concentrated densely in the northern and eastern parts of Taegu. And the street pattern within residential areas of the Korean people was shaped like a maze type in contrast with Japanese residential areas, which showed grid pattern of streets. This is another general pattern of almost all colonial cities, especially in Asia.

Through this process, today it appears that, out of overall residential areas which occupy the highest ratio in urban land use,

those for eminent people influence the functional development of urban spatial structure very heavily as a key point in urban residential structure. Truly, residential segregation can be seen as the spatial manifestation of uneven distribution of such important scarce resources as housing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locational distribution of the eminent people show their socially and economically stabilized standing in Taegu, taking the aforesaid situation as a background of the study. And the proces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 to examine the forming process of residential areas in the city as a theoretical supporting, to put in order on classical interpretation to formation of residential areas, and general type modern residential areas formation, and economic decision factor of land us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growth and development of eminent persons' residential areas and, at the same time, extract locational characteristics through the pattern of eminent persons' location and predict changes in the future.

Key words : walled city, residential segregation, social area, eminent person.

* Lecturer,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